

복지·보건 격차 해소로 도민 체감도 향상

도, 현장 중심 복지·보건 정책 추진... 총 16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고수준 복지·보건 행정 역량 입증

전북특별자치도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지역 간 복지·의료 격차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돌봄부터 의료까지'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 복지·보건 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자치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복지·보건 분야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전북자치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이 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복지·보건 분야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으로 총 4조418억원을 투입해 도 전체 예산의 38.3%를 복지·보건 분야에 집중 배정했다.

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과 통합 돌봄 기반 마련,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 확충, 정신건강 및 건강증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정망 구축에 주력했다. 특히 제도권 밖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지역 연계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복지 체계의 질적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전북자치도는 2025년 중앙부처 평가에서 총 16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보건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사업 발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비롯해 아동보호 체계 2년 연속 대상,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2년 연속 우수기관, 지역사회 보장계획 9년 연속 우수기관 등 11건의 성과를 거뒀다.

보건 분야에서도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 최우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A등급 등 5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영유아부터 노인·장애인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체계 강화에 속도를 냈다.

전북형 무상보육을 지속 추진하고 긴급 돌봄을 위한 SOS 돌봄 센터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별돌봄센터를 운영했다.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일상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였다. 노인 분야에서는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 수요 대응 측면에서는 노인 일

자리를 전년 대비 7,000여명 늘려 8만 6,000여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와 권리 중심 일자리를 늘려 당사자 주도형 고용 기반을 강화했다.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화를 통해 4만 6,000여건의 위기가구를 지원했으며, 의료급여 사제 관리를 통해 진료비 7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 군산의료원과 무주 군립요양병원 개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원격 협진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 접근성과 필수 의료 대응력을 높였다.

건강 증진 분야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화, 난임·임산부 지원, 광역 자살예방센터 개소 등을 통해 출산과 정신건강, 만성질환 예방을 아우르는 전 생애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방상윤 국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과 시군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과 의료 안정망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대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 서포터즈를 위촉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북선관위, '캠퍼스 서포터즈' 위촉

도내 대학생들로 구성... 청년 눈높이 선거 홍보 본격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8일, 대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선거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내 대학(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미디어학과 학생 10명이 '캠퍼스 서포터즈'로 위촉됐으며,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주요 선거 정보를 청년의 시각으로 소통을 제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내용은 △투표참여 △정책선거 △시기별 금지되는 행위 △투표소에서 유권자 유의사항 등으로, 제작된 영상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게시된다. 특히,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소통 광고를 함께 실시해 젊은 층 등 유권자들에게 전달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서포터즈 박주연씨는 "선거에 무관심한 청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며 "짧고 친숙한 영상으로 선거를 더 가깝게 전하는 역할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맞춤형 홍보를 통해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및 정책선거 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인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 성황

수도권 출향도민 500여명 참석해 전북 도약·도민 화합 다짐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시상· 장학금 전달로 지역 인재 응원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회장 박영길)는 새해를 맞아 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수도권 출향도민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응원하고 도민 화합을 다짐하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주요 인사와 수도권 출향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전북의 도약과 도민 화합에 뜻을 모았다.

행사는 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과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와 인사말,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시상, 장학금 전달, 축하공연과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고향 전북의 발전을 지원하며 도민 간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도민회중앙회는 이날 각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인 인사 7명에게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공공 부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규백 국방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농사 부문에 홍계자 전북도민회중앙회 여성



새해를 맞아 8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신년인사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외 박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등 주요 인사와 수도권 출향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원장 △환경 부문에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JB GLOBAL YOUNG LEADER 부문에 채상훈 싱가포르南洋공과대학교 교수 △역사 부문에 박영일 인의·손호복 선양회 모임 회장이다.

또한 출향도민 자녀 10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박영길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민회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2026년에도 도민회가 더욱 단합해 전북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향 전북을 잊지 않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출향도민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며 "2026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전국의 전북도민을 잇는 가교로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인천에서는 인천호남향우회총연합회 신년행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 관계자들은 인천 지역 향우들과 소통하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만호 기자

도, 탄소중립 선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박차'

이순택 환경산림국장, 언론브리핑... 2026년 환경·산림 정책 전면 강화 계획 밝혀

"탄소중립·환경안전·물관리·산림 정책을 하나로 묶어 지속가능한 전북 만들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은 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5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 환경·산림 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순택 환경산림국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환경·산림 정책을 판도 중심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했다"며 "2026년에는 탄소중립, 환경안전, 물관리, 산림 정책을 하나로 묶어 성장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정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순택 환경산림국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환경·산림 정책을 판도 중심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했다"며 "2026년에는 탄소중립, 환경안전, 물관리, 산림 정책을 하나로 묶어 성장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전 시·군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 이행 기반을 마련했고,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과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켰다. 그 결과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률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생태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국가 생태탐방로, 탐사터 운곡습지 센터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생태관광 기반도 확충하고 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대기질 개선에 힘썼으며,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문제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갈등을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전환했다. 사전 예고·컨설팅 중심의 환경 단순 전환으로 위반율을 낮추는 성과도 거두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물관리 분야에서는 용담호와 옥정호 복조 저감 대책을 추진해 광역상수원 조류경보 발령 기간을 크게 줄였고,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치유원 개원과 산림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산림 복지와 안전 기반을 강화했다.

2026년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국제기구 이클레이(ICLEI) 가입을 추진하고, 도민 참여형 실천 정책을 확대해 2030년 온실가스 43% 감축 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확대, 이차전지 폐수와 화학사고 대응체계 고도화로 도민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상수원부터 하천,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관광 인프라 확충과 산불·산태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 체감 산림 정책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순택 국장은 "탄소중립은 속도도 높이고 환경안전은 빈틈없이 관리하며, 산림과 생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키워가겠다"며 "도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해양주권 강화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8일,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나포 선박 석방을 위한 담보금도 법정 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단속

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형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상해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송방량이 처벌로는 외국어선 불법 어업을 막을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어민 피해를 줄이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후보자 검증위·선거 기획단 구성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식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고, 1월 5일부터 해당 기구 인선을 최종 인준했다.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에는 류인철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방선거 기획단장에는 김광석 전북도당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인사들의 자격을 심사하여, 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검증하는 핵심 기구다.

지방선거 기획단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표명한 '국회 제로·부패 제로' 기조를 전북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행 조직이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 준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전북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국회 Zero·부패 Zero를 완성하고, 전북에서부터 정치 혁신의 비범을 일으켜 지역정치 혁신의 원인으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정부보안업무평가 '양호' 등급

작년 대비 한 단계 상승... 설문조사 지표는 '미흡'→'우수' 도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보안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보안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체계, 인원·문서·시설 등 분야별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년 대비 보안업무 전반의 관리 수준이 개

선되었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보안 의식 설문조사' 부분은 '미흡'에서 '우수'로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안시설 개선 현장 중심의 보안 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정부 보안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